

# 임영웅 '미스터트롯' 진...선 영탁·미 이찬원

## 19일 토크 콘서트에 출연

화제의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최종 우승 트로피는 임영웅(사진)이 차지했다.

경연 내내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임영웅은 14일 오후 7시 55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생중계된 '내일은 미스터트롯-최종결과발표'에서 1위인 진(眞)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진으로 호명되자 눈물을 흘린 임영웅은 큰절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TV를 보며 시청해준 시청자들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서 좋은 조언과 평가해 주신 마스터분들께도 감사하다. 낯아주신 어머니, 할머니 감사드립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날 결승전 생방송 날이 아버지 기일이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겠다.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문자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의 25%가량에 해당하는 137만4748표를 얻어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에서 만점을 받고 중간점수 결과 2위를 뒤흔었다.

2위인 선(善)은 영탁, 3위인 미(美)는 이찬원이 차지했다. 영탁은 "잘 키워주셔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바치는 게 처음이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인데 저희는 좋은 에너지와 음악 전해드리는 가수들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스터 합산점수에서 유일하게 1천 900점대를 받아 중간까지 1위를 달리던 대학생 참가자 이찬원은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최종 7명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며 "미"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차지하게 돼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외에는 김호중이 4위, 정동원 5위, 장민호 6위, 김희재 7위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MC 김성주의 입을 빌려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누는 기준을 공개했다. ▲참가자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 ▲문장부호와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 ▲참가자 이름을 여러 명 적어 하나의 문자로 보낸 경우 등은 무효표로 처리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계된 유효 투표수는 542만8900표였다.

'미스터트롯'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결승전 경연은 지난 12일 녹화 방송했지만, 실시간 문자투표를 받아 우승자 발표는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전날 새벽까지 진행된 '미스터트롯'은 최종 우승자와 순위를 발표하지 못하는 대형 방송사고를 냈다.

제작진은 문자투표수가 773만1781표이나 몰려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우승자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방송되는 '미스터트롯의 맛-토크 콘서트'에 출연하며, 다음

달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음원 차트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

'미스터트롯' 최종결과 발표 다음날인 15일 주요 음원사이트에서는 출연자들이 경연에서 선보인 곡들이 실시간 종합 차트에 다수 진입했다.

최종 2위 선(善)을 차지한 영탁의 결승전 경연곡 '편이야'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멜론 44위, 지니 12위, 플루 35위 등을 차지했고 소리바다에서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벅에서도 최상위권인 5위에 올랐다.

멜론에서는 영탁의 '막걸리 한잔'(68위), 최종 진(眞)으로 우승 트로피 주인이 된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75위) 및 '보라빛 엽서'(89위), 3위 이찬원의 '진포배기'(90위) 등도 차트에 진입했다.

지니에서는 3위 이찬원의 '18세 순이'(42위), 영탁 '막걸리 한잔'(48위), 임영

웅의 '배신자'(52위) 등이 차트에 포진했다.

멜론 성인가요 차트, 지니 트로트 차트 등 트로트 장르 차트에서는 '미스터트롯' 음원이 최상위 1~10위권을 대부분 장악하며 '잘 세우기'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과거 대중음악 주변부였던 트로트 곡들이 잇따라 장르 종합 차트에 포진한 것은 눈길을 끄는 현상이다. '미스터트롯'의 대중적 인기가 실제 음원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가인을 배출한 '미스터트롯'이 지난해부터 트로트 열풍을 불러오면서 종합 차트에서 트로트 장르의 존재감이 커졌다.

지니뮤직은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톱차트' 200위권에 트로트 장르 음악이 진입한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 '기생충' 전 세계 수익 3천억원 돌파

북미 645억·일본 477억 수익

영화 '기생충'의 전 세계 수익이 3천억원을 돌파했다.

13일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의 전 세계 수익은 2억5351만523달러(3104억 9968만원)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는 5천278만4907달러(644억9787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금까지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가운데 '기생충'보다 많은 수익을 낸 작품은 '와호장룡'(1억2810만달러), '인생은 아름다워'(5720만달러), '영웅'(5370만달러) 세 작품뿐이다.

일본 매출도 이미 40억엔을 넘어 40억 4716만엔(477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일본 영화 전문사이트 에이가닷컴(eiga.com)에 따르면 지난 주말(7~8일)에는 일본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했다.

'기생충'은 지난 1월 10일 일본 전역에



개봉했다. 개봉 초기 5위로 출발했으나, 지난달 10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휩쓸 뒤에는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 왁스, 신곡 '집으로 데려다줘' 발매

## '겨울인듯 추워' 이후 9개월 만

가수 왁스(사진)가 오랜만에 발라드곡과 함께 돌아온다.

왁스 측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집으로 데려다줘'를 발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옛 연인을 잊지 못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애듯하게 담아낸 발라드곡으로, 지난해 6월 발표한 '겨울인듯 추워' 이후 9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왁스는 2000년 1집 '엄마의 일기'로 데뷔했다. 동명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인 '오빠'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머니' 등 댄스곡을 비롯해 발라드곡 '화장을 고치고', '부탁해요' 등도 잇달아 히트시켰다.

다수 드라마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참여하고 싱글 및 미니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 드라마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참여하고 싱글 및 미니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제보자들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빠뽀 모야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넷워킹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뉴스브리핑
[3]	00 UHD 숨터(재) 40 시사기획 창(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차츰우물 만큼 유망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동물의 왕국	00 대화의 회열 스페셜 (강수진 편)	00 5 MBC 뉴스 25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아무도 모른다 1-4회 추적하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브24 55 육탄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5 더 라이브 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5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모로코	40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20 나이트 라인 50 KBC특선다큐 인생여행 세계의 이색호텔(재)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당동 유치원	14:45 물랑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2(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미노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기차길 옆 동남아> -순수 시대 캄보디아>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남쪽나라 오감기행 1부 만지다, 봄>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당동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6일(음 2월 22일 戊午)

 子	36년생 용기 있게 추진하면 흉사도 비켜 간다. 48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60년생 안도하기에는 이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72년생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84년생 지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6년생 명에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3, 61	 午	42년생 일시적인 정형일 뿐이니 과반할 필요는 없다. 54년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흐름이다. 66년생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니 당장 실행하라. 78년생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90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02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95
 丑	37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언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느니라. 61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73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85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97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4, 81	 未	31년생 달갑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맞다. 43년생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좋다. 55년생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67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79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91년생 지나치다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운만 더한다. 행운의 숫자 : 41, 99
 寅	38년생 빨리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다. 50년생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라. 62년생 실행해 두고 보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축진제가 될 수도 있다. 74년생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6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98년생 근면과 검소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55, 87	 申	32년생 긍정적인 희소식이 올 것이다. 44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56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68년생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다가 잡힐 것이다. 80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92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16, 86
 卯	39년생 행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 있다. 51년생 승산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다. 63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해 하는 이로움이 보인다. 75년생 전해들은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음을 알라. 87년생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니 차근차근 행하라. 99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63	 酉	33년생 형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45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패를 극대화 시킬 것이다. 57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라. 69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81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93년생 본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자질을 빛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8, 84
 辰	40년생 확실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52년생 합치고 보자. 64년생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명심하라. 76년생 돈은 보이나 잘 들지 않아서 문제이다. 88년생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점을 노출 시킬 것이다. 00년생 게을리 하더라도 천추의 환을 남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68	 戌	34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46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58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70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마라. 82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94년생 주어지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0, 69
 巳	41년생 상대적일 수 있다. 53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65년생 주변의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 77년생 허심탄회한 토로가 불포를 뜨게 하리라. 89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01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9, 65	 亥	35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7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 59년생 취약한 곳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라. 71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3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95년생 징후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47, 51